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7년 10월 6일(월) 제698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한병만 편집인 김재환 주간 변재철 편집장 김재환 인쇄인 홍준우 직대문신 961-4151, 962-7128(외)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06 FAX 961-4183 (통인) 0335-30-4112 서울 서대문구 이문동 276-1 경기도 성남시 오현동 원성리 신 89

행정규제에서 편집권 규제로

대학당국, 지도교수권한 확대 주장

개강 후 대학당국과의 '밑고 담기'를 거듭하던 '외대' 교직원위원회(교지) 문제와 서울배움터의 소극적·학생식당 문제와 애초 '인원타결'로 의견을 정리했던 학생측 임원과 다른 입장을 펼쳐 전개되고 있다.

교지문제는 지난 24일(수) 학생처장과 교지 실무협상에서 교지대인임을 합의하면서 매달이 풀리기 시작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대학당국이 지도교수인문제를 교수, 이에 교지측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면적인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9일(월) 있었던 학생처 실무자

와의 면담에서 교지측은 △안전적 재정 확보를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제작과정에 편견자유권을 보장하는 상에서 지도교수에게 도입 등을 얘기했으나, 학생측은 "교지대를 3,000원으로 인상했으니 학교 차원의 지원은 이야기 하지 말자", "교지는 지도교수의 합의하에 제작해야 한다"며 교지측의 주장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교지위원장 정태원(사법·한교 3)은 "학생들의 교지대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대 구입비 등을 학교차원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였다"는 학생측의 재정부담을 학생들에게 전가한 채 문제를 덮으려한다"고 부당성을 토로했다.

또, 교지측이 제시한 지도교수의 역할이 거부당함에 대해 "인원만 총장이 담초 지도교수의 역할이 행정적 차원으로 국한된다고 얘기했던 것과 달리 대학당국은 편집자유권 탄압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일(수) 언론협의회(외대)이제시, 공대·컴퓨터공학 4)소속 기자들은 '언론탄압' 제도를 하는 지도교수제 반대, '학생들이 낸 2학기 예산 축적 지금' 등을 요구했다.

또, 이번 주부터 서울배움터 붉은관에서는 편집자유권탄압 사진전·비디오 상영, 서면운동, 천막농성, 교지기획전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8일(수) 서울배움터에서는 "편집자유권·학생자치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일(목) 안배움터 학생들은 재정부담을 학생들에게 전가한 채 문제를 덮으려한다"고 부당성을 토로했다.

문제는 학생식당 문제는 총학생회와 대학당국의 의견대립이 심하지 않다. 학생식당의 경우 총학생회가 제시한 '후생과 해체, 학내 모든 복지시설의 임대, 학생 참여 가능한 공동협의체 구성'이라는 안이 대학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음식가격을 2년간 동결하자"는 총학생의 요구에 대해 대학당국은 "계약기간도 1년인데 담당 이윤을 남긴다는 보장이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관련 학생식당의 값과 같이 조정될 수 있겠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소극적의 경우는 소극장 구조조 바꾸는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공사안과 사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 내에 총학생회가 공사안·사용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밥이 일군 결실

농촌은 우리의 고향이고, 농민은 우리의 아버지이다. 지난 2일(목)부터 5일(일)까지 전북 순창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농민학생연대활동(농학)을 다녀왔다. 예술제 등의 여러 행사가 갖춰진 관계로 준비과정에서 미흡한 실도 있었지만 농민들과 함께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농학은 진행되었다. 뜨거운 가을햇빛 아래서 밭을 갈고 있는 모습에서 농촌의 희망이 보인다.

김동호 2기

지면 안내

계속되는 학생식당 수입3면
중간고사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곳곳에서 부실·과점수입 지적, 본선 생각 나게 하는 외대.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내는데 왜 선거권은 주지 않는가? 공민회의 '헌법'의 권력악용10면
학생의 참정권은 무엇인가? 학생의 참정권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학교.

학원비 4천원의 생활6면
학원비 4천원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학생들의 생활을 들여다본다.

만 18세도 선거할 수 있다5면
헌법준비 4천원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학생들의 생활을 들여다본다.



제국주의와 O-157

▲우리의 사람들은 옛부터 백의민족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다름을 싫어했다고 한다. 그래서 한반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도 없고 오히려 순하고 착해 잘 일일이 오랑개와 왜곡의 침입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침략자에게 잃은 것도 많지만 그것을 굳이 되찾으려 하지 않았다. 너그러운 품성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세력이 확장되었을 때 우리민족은 또 한번의 엄청난 침략을 받았다. 전국의 방목로 하나까지도 우리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재화나 사람은 일본 제국주의 국가의 것이었다. 그 때 인제에 참여하고 대학원 사람들은 직접적 침략을 받아 먹고 살 수가 없어 자기 밭고랑 밟으려는 이기적인 백성들과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 나라를 빼앗을 우리들과 평화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라를 일본에 판 이들은 일본을 이해했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대항하는 이들을 처단하는 데 앞장섰다.

▲이제 50여년이 지나 우리 민족은 O-157이라는 이름도 신기한 세균과 마주치게 되었다. 사실 이런 세균을 이름만 알았지 여러 번 만나 보았기는 했다. 그것들은 거의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들어 오는데 감염되면 식중독으로 인해 심하면 죽기까지 한다고 한다. 심각한 것은 이 세균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 미국과의 관계협상 중 '선 통관, 후 검역'이라는 미국의 일방적인 강요를 순순히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 백성이 아닌 국민인 여러 미국산 과일과 육류로 인한 식중독의 위험을 떨치고자 매일 집회를 열어 미국을 성토했고 정부를 성토했고 있다.

▲그러나 미국산 농작물을 수입하면서 '선 통관, 후 검역' 조치 받아들이는 정부는 아무런 말이 없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 들어온 세균의 수가 심각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평화를 너무나 사랑해서 미국과 싸우느니 우리 국민들을 모두 식중독에 걸리게 하거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 옛날처럼 미국에 합병될 때를 생각해 미국 세균에 대한 저항을 걸러 주려는 의도인가 보이다.

허윤숙

2회 인권영화제 개최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 끌어

'인간을 위한 영상'을 주제로 사선심의를 거부하는 제2회 인권영화제가 지난 달 27일(토)부터 이 달 4일(토)까지 8일간 홍익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재의 노래'(볼리비아, 1994, 우기마루 집단)를 개막작으로 세계13개국 24편의 영화가 2회제 상영된 이번 영화제는 정부와 학교당국의 봉쇄조치에도 매일 8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정도로 일 만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정부의 홍익대학은 상영권 폐쇄, 학교 정문 앞 검문검색, 전원공공 중단, 사선심 집행위원회에 대한 고소와 구속영장 신청 등 인권영화제를 무산시키기 위한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심지어 1일(수) 새벽 1시45분에도 전경 6개중대가 총대를 침범해 일성(공

대학생회)총학생회장 권한대행과 총학생회 간부 1명을 연행하고 영화제와 관련된 플래카드와 대자보를 모두 압수해 가는 일이 발생해 학생·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관련기사 7면

김민서 기자

알림

본보는 신문의 직적당장을 위해 신단만화·외대매장을 담당할 제 능있는 만화가자를 모집합니다. 학생회관 2층 '외대매장'로 문의하십시오.

민택노련, 총파업투쟁 결의

2일 면허증 반납, 10일 전후 파업돌입

전국민주학생노조연맹(민택노련, 이하 장 강승규)은 지난 달 29일(월) 대의원 전원회의의 결의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10일째 전국의 모든 택시를 사흘도 걸리지 정부에 반납하는 총파업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택노련은 "운송수입금 회차와 역관리제와 택시원전원금제를 위해 9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대부분의 택시수가 운송수입금 수납을 거부하는 등 기존에 불법지급, 도둑, 사납금 제도를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택노련은 "국

무차별적인 전원금제"가 택시원전원금제에 대한 폭력적 해법이라고 주장하며, "민택노련은 10일(수)부터 10일(수)까지 전국 모든 택시를 사흘도 걸리지 정부에 반납하는 총파업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민택노련은 "국

무차별적인 전원금제"가 택시원전원금제에 대한 폭력적 해법이라고 주장하며, "민택노련은 10일(수)부터 10일(수)까지 전국 모든 택시를 사흘도 걸리지 정부에 반납하는 총파업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민택노련은 "국

진보의 역사, 교지의 흐름을 막을 순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진보의 길을 여는

「외대」교지



한홍련 출범식 이후 확산되는 학원안정화대책에서 학교당국은 학생자치권 탄압의 일환으로 대학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은 '지도교수 선임'만을 강요하며 교지의 2학기 예산인 학우들이 낸 교지대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측이 말하는 '지도교수는 교지 제작에 지도

한 권함이 있다'는 말은 곧 교지에 지식검열을 전제로 한 편집자유권 탄압을 명분화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교지편집위원회는 외대인 여러분께 쉽게 오는 (월)부터 진보의 길을 걷고 있는 외대교지의 흐름을 막아보겠다는 학생지의 무인한 지식의 편집자유권 탄압에 맞서 투쟁할 것을 권합니다.

투쟁일지

6일(월)부터 이문동 붉은 광장에서 천막농성 시작
8일(수) 교지 편집자유권, 학생자치권 수호를 위한 투쟁집회대회
9일(목) 이문, 양산 교지편집자유권 수호를 위한 하루 수진
(이문 : 학생회관 앞 잔디밭 / 양산 : 범수남 전시장)

9대 언론협의회

사 설

대중평과 학생자치권

대학종합평가(대중평) 실시로 인해 우리학교 수단이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긍정성과는 다르게 이에 수반되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기꺼워 수반은 없다.

9년부터 본격 시행된 대학평가인정제는 대학을 학부와 대학원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학부는 교육·연구·사회봉사·교수·시설 및 설비·재정 및 경영의 6개 영역에 걸쳐 100개 항목을 평가하며 대학원은 별도 기준으로 20여개 항목을 평가한다. 학부는 교육 120점, 연구 70점, 사회봉사 30점, 교수 80점, 시설 및 설비 100점, 재정 및 경영 100점을 합쳐 500점 만점에 328.3점을 받으면 평가에서 인정받을 것으로 한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우리학교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학교전반을 의욕으로 새로 철거하고 도서관 창사 수도 늘렸다. 오래된 건물의 화장실 공사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고 높은 점수를 매겨져 있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평가를 대비한 것이다. 그 의도가 어찌됐든 현실적으로는 대중평의 성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평의 폐단은 기꺼워 상상을 초월한다. 대학은 교육의 터전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립대학에서는 부정부패가 횡행하고 비합리적 정통에 흔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평가항목도 학교운영의 민주성 및 합리성과 결부되어 커다란 비중을 두고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중평에는 이와 관련한 항목이 단 하나도 없다. 학교법인의 부정부패와 정통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으며 별첨되는 자료도 없다. 고교에서 재단장임금이 대학재정 수입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 하나. 반면 학생자치활동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항목은 하나도 없다. 최근 1년간 휴강수업 및 학기말 수업 일수와 같은 수업의 충실성과 성적평가방법, 과제를 처리, 평가기준 적용의 엄정성 및 학사정보 등 학습평가의 엄정성을 강조한 것들이다.

서울대의 경우 '학사정보' 항목이 이행되고 있는 것이 감점이라고 한 반면 '학생회' 주관의 연례의 운동권 내부학생들에 의한 의식화의 장이 될 위험성이 없으면 지도교수가 없는 동아리가 많은 만큼 동아리 지도교수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대에는 '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지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전반부부 평가는 현존한 사례 이후 일부대학이 '자율적 학생활동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학생자치활동' 항목의 이름으로 각 대학에서 △학생회조직 수립률 △신입생오리엔테이션 급지 △학사관리 강화 △지도교수담당제 등을 통한 학생활동 감시 등으로 나타나고 교육부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식으로 이를 유도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94년에 당시 자강대 박용중장은 남원지 서울대부부 '총학생회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폐지하고 강의실 지정과자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고 한남대 신문사는 한원원 관련기사에 대해 주간교수가 '대학평가에 끝까지 한원원, 노동관련 기사'는 실을 생각하지 말라'며 인쇄중지를 내리기도 했다.

우리 학교 원내배출에서 사설 및 설비 조항의 육의 공간의 침식성을 들어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행해 온 대외보장 지장된 장소 이외에 폐지된 대외보장은 철거하고 있고 이에 학생회와 충돌을 빚고 있다. 한편 서울 배움터에서는 '외대' 교지도 앞서 나온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지도교수 선별 조항으로 인해 학교측과 교직원간 갈등에 마찰이 생겨 불거지고 있다.

이런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규제 외에도 더욱 심각한 파장을 불러 일으킨 것은 '지도교수 선별'이다. 학생 담당지도의 체제와 그 실적을 보는 항목을 명시된 것으로 학교 측과 교수 간 갈등과 학생들과 상담을 하여야 한다. 물론 교수와 학생 간의 진로 문제와 같은 심도있는 대화가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에게 대한 일종의 감시 등으로 파행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는 평가항목에서 '학생회의 건전한 활동' 문항하에서 드러난다.

결론상 정부와 사회 전반의 개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도에서 예초 96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대중평을 97년부터 당겨 실시했다. 그만큼 평가 항목도 줄수록 이 각 학교의 특성에 따른 항목도 없어 이른바 평문대에 유리한 점 등 형평성의 문제가 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점상 결점의 보수적인 개혁에 따른 학생자치활동 규제와 감시이다. 결점상 대중평과 교육부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의 대학을 개선할 생각인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 민주성을 평가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올바른 학교 운영에 대한 자극제가 되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감시와 규제도 약화될 수 있는 항목을 배아 한다.

출산의 소리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00자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누십시오.

원고마감은 매주 금요일 오후이며, 서울·영인 학생기자실로 오십시오.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받습니다. (하이텔, 나무누리(OEDAE))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대학내부의 줄줄행성

학생 식당 문제와 소극장 문제, 교지 문제 등으로 아수산하게 2학기 개강한 지 한달이 지나버렸다. 개강 후 교내에 돌기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바쁜 것이 있다면 교수회관으로 옮긴 교내서점, 테니스장 개장, 도서관 지하 문방구 등이, 그리고 도서관 공사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은 종전의 3층을 서고로 만들고, 휴게실과 교수연구실이 있던 5층은 열람실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도서관 5층에 있던 '메카정비시스템'이라는 방이 소문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급한 보고서 작성이나 교내에 모자란 출력장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여기 메카정비시스템을 이용하였는데, 이방의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000원의 상의 카드를 구입을 해야만 했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구입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여타의 조치가 없어 버려 그 카드는 쓸모가 없어졌다. 카드 뒷면에는 중앙대, 송일대, 해운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상 카드를 쓰기 위해 다른 학교까지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도서관 1층의 무인 복사카드와 호환이 되지 않아 카드가 소용이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조치는 카드를 구입한 많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된 셈이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긴 했지만 분명 이는 외부에서 들어온 상업적인 것이므로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 환불이나, 시스템의 이점설치 등이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출정현(사학·행정 4)

화재사고 인제 도움 필요

지난 9월 25일 오후 12시 30분경, 나는 오후 수업을 들어가기 위해 하숙집에서 잠을 먹고 있었다. 오후 1시경 발을 일찍 깨고 자기방으로 가던 후배가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줌마, 하숙집에 불 났어요!" 후에 들은 얘기지만 후배가 자기방에 들어갔을 때 참으로 연기가 들어오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누구 집에 불 났냐?' 하고 생각했었는데 거실로 나와 보니 덮여 있는 방문 틈새로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

아줌마가 연기가 나고 있는 방문 틈새를 하숙집 앞을 열었을 때 지옥판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아올랐다. 아줌마는 얼음처럼 얼어 버려 불을 끌려고 달려들었지만 불길은 더 커져 갔다. 아줌마는 결국 불을 끌지 못하고 울부짖었다. 일선화환소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워 불길을 멀리하고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밖으로 뛰쳐 나왔다. 벌써 길거리에 사람들이 나와 있었고 아줌마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리저리 오가며 어쩔 줄 몰라하였다. 내가 서울에 온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 때처럼 서울인식이 각박한 지는 처음

이었다. 누구 하나 도와 줄 생각이든 구경만하며 프로판 가스가 터질까봐 엘리프로판 가스를 꺼내려는 소리만 치고 있었다. 10분 후 소방차가 도착했고 곧 불길은 잡혔다. 켄터 하나 건지 못한 내방은 잿더미만 남았고 다른 세 방도 화가 났다.

다음날 대학경찰서에서 구호물품이 나왔고 이곳에서 한 솥을 보내주었다. 다행히 하숙집 주인네가 주거하는 빌딩은 타지 않아 현재 별체에서 주거하고 있다. 불행한 하지만 하숙생 정부가 떠나버린 하숙집 아줌마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하며 아직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있다.

하숙집 주인네의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고 피해 보상액을 재산 피해액의 4분의 1도 받지 못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여러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백승윤(법·법학 2)

소년의 죽음을 보며

각종 사고들과 어지러운 현정국에 한 맺을 느끼고 있던 나는 어느날 모처럼의 신문 기사를 펼쳐 보았다.

소년가문의 자살 그것도 빚투족에 못이긴, 세상이 정말 이래로 가다간 망하지 않을지 하는 그러한 걱정이 덜어졌다. 소년은 자본주의가 지향한다는 그 '돈', 모든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돈'에 희생되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그 '돈'으로써 가족을 부양하려다 죽은 것이고, 그 어머니 역시 자식들을 부양하려다 빚을 지고서 떠나간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의 사슬은 여기서 그 가족을 그냥 두지 않았던 것이다. 사채업자, 자본주의가 얽아놓은 가장 더러운 족쇄들 중의 하나인 그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소년에게서 조금의 금전이라도 끌어내려 갖은 짓을 다 했던 것이다.

이젠 배려만 한다. 어디가 썩어도 단단히 씌는 이 현실 자체를 깨쳐야만 한다. 위로부대의 개혁이 어렵다면 개혁자체를 혁명으로 변질시켜야만 한다. 천천히 변화는 인내심은 이미 없어질대로 없어진 지 오래다.

소년은 죽었으나 우리들은 죽지 않았다. 우리들 중 누군가가 또다시 제 2의 소년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젠 그 소년같은 죽음은 없어야만 한다. 사회가 더이상 썩지 않게 모두를 의식부터 바뀌어야만 한다.

최원호(사학·영어 2)



남녀평등한 국적법

20대의 청년이 40대의 아줌마가 결혼할혼을 했다만 주위에서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연변에 가면 이런 일이 가끔 있는 모양이다. 한 연변 아줌마가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한국남성과 서양상 국적결혼을 해서 한국에 왔는데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의사를 받아 조사를 받던 중 위장결혼임이 발각되어 연변으로 다시 송환되었다고 한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아줌마가 결혼소속소 개소비로 돈 5백만원을 그 남편 남기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 빚다마에 앉아 한숨만 쉬고 있다는 것이다. 구태여 이 사건이 아니라도 한국국적을 얻기위한 위장결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연변부터 한국국적을 얻으려는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우리의 딸들이 미국국적을 얻기 위해 미군과 결혼해서 수모를 겪던 일이 없게끔 같은데 사정이 이렇게 달라져 있다.

정부는 이런 위장결혼을 막기위해서 국적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한국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곧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 2년후에 귀화검사를 받도록 하여 자격을 심사해서 한국국적을 주겠다고 한다.

결혼한 부부가 한국국적을 갖기까지 일정기간을 통제한 것을 요구하여 국적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듯 싶다. 어떤 한국인이 아내를 분할함으로써 아내가 외국인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거인이 되지 못해 안된다고 하더라도 애기를 들으면서 국적이 다른 부부 사이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까 하고 느꼈던 기억이 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모두 위장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보다 후진국의 국민들이면 것만도 아니다.

올림픽이 시를 벌써 있었던 말인가. 불과 십여년전까지 선진국인과 결혼하는 데에 수모를 겪었던 시를을 외국의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에게 결혼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풍방의외국인의 태도를 국적법 개정에서도 살펴보면 알고 회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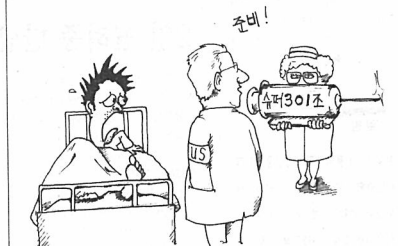
이법 국적법 개정 기하여 한국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자에게도 반대의 경우와 똑같이 국적취득의 기회를 주겠다고 한다. 한법에서는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이 결혼하는 경우에 그 외국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현로 한국인 아내를 따라 한국인으로 귀화하려는 외국인 남편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러한 남편중심의 국적제도는 가부장적 사고에서 나오는태 세계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보수적인 국적법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거의 없어 유엔으로부터 이러한 지적을 왔다.

이번 기회에 종전의 부제결혼특우를 수정하여 남녀평등한 국적취득제도를 마련한 것은 환영한다.

이 은 영
(법학과 교수)

독자만 평



한·미 통상마찰병의 특요주사

박신일(사학·독일 3)

경제도 혼들혼들, 대학도 혼들혼들, 우리집 기둥도 혼들혼들...

-호랑나비-

동독금도 할부남입세

로 -세월이 스무트-

예미를 팔아라, 팔아!

-속 타는 예미-

총장님, 총장님, 선거

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악바레 학생-

동독금이 오르는 만큼

학생들이 수준도 오르

고 돈을 벌어야겠고, 퍼

롭다.

-돈 없는 학생-

다들 세상에선 교육비

가 무로인 나라에서 태

어났으면 좋겠다.

-나쁜나라 주민-

동독금은 매년 인상이

되는데, 강의 내용은 부

실하기만 하누나.

-누나가-

아! 이번에도 휴학하

농협중앙회 대졸직원 모집

1. 채용 예정 인원: 000명

· 상경계열, 법학계열, 인문사회계열, 공과계열, 자연계열, 이공계열, 전산계열, ROTC 임관예정자 각 00명

2. 응시자격

· 학력: 4년제 정규대학 38,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중 모집권인

계열학과 전공자로서 학력 또는 3, 4학년 성적 평점평균 1.0이상

· 연령: - 학사: 74.1.1 이후 출생자 (생략일자)는 69.1.1 이후 출생자

- 석사: 72.1.1 이후 출생자 (생략일자)는 67.1.1 이후 출생자

- ROTC 임관 예정자: 74.1.1 이후 출생자

· 병역: 남자는 병역법 또는 면제자에 한함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일시: '97. 10. 9(목) ~ 10.14(목)

· 장소: 교부(해당 대학교 취업포수), 접수(지정 장소)

4.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고사(영어, 일반논술, 인성, 적성, 사무능력검토)

3차: 면접, 신체검사, 신원조사

5. 필기고사 일시 및 장소

· 일시: '97. 11. 9(일) 09:30 ~ 13:20

· 장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6개 지역의 추후 지정 장소에서 실시

문의전화: 서울 02-397-5306 ~ 8

경기 031-228-8800, 강원 033-128-8800, 충북 031-228-8800, 충남 031-228-8800, 전북 031-228-8800, 전남 031-228-8800, 경북 031-228-8800, 경남 031-228-8800, 대전 031-228-8800, 광주 031-228-8800, 대구 031-228-8800, 부산 031-228-8800, 제주 031-228-8800

농협중앙회

법보의재판 - 선거연령 만20세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과학정보 - 우리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생물

군대도 가는데 선거는 왜 못해 선거연령 만 20세 규정 위헌판결



지난달 30일(화) 법대 공법학회가 헌법소원심판을 열었다.

일곱번째를 맞는 올해 모의재판의 주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5조의 선거연령 만 20세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었다.

이번 재판은 법학, 사회학으로 구성된 헌법소원심판단 만 20세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선거권은 행사할 수 없는 180만명의 만 18세, 19세를 대상으로 이헌재교수 공법학회의 11명이 이헌재교수에게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재판의 논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5조의 선거연령 만 20세 규정'의 헌법 제 3조 제2항의 국민주권, 헌법 제 11조 제 1항 평등권, 헌법 제 24조 선거권에 대한 위헌 여부였다.

우리 헌법은 보통선거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립하여 평등의 원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신분, 재산, 종교, 인종, 성별의 차이에 불구하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선거권을 갖게 된다. 그런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5조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20세 이상의 국민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보통선거권이 헌 시대의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확립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다. 그리고 헌법 제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연령의 구분이 입법자의 생각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청구인 측의 주장은 우선 선거연령은 사회적, 입법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의식 수준 및 교육수준, 국가의 사회의 민주화 정도, 연선의 자유와 보장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1960년 선거연령이 만 20세로 규정된 이래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언론 매체의 발달과 의식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치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령을 변하지 않고 있음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20여년 전부터 법률 개정해 선거권 행사 연령을 18세이상으로 정하는 등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 측은 헌법소원심판단 선거연령을 만 20

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만 18, 19세의 미성년자들은 대학진학과 취업을 앞둔 고등학생이 대부분인데 이들을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므로 이러한 미성년자의 미숙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구인 측은 만 18세, 19세들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이 지는 모든 의무를 지고 있고 권리를 행사하며 결혼도 할 수 있으며, 국방과 납세의 의무도 갖추고 있는 등 법학, 사회학으로 상인취급을 받고 있다는 논지를 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젊은 권력층이 만 18세, 19세 청년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는 만 18, 19세 청년들이 젊고 순수해 뇌물과 협박, 지방색이 통하지 않고 그들의 성향이 본질상 진보적이므로 새로운 인물, 새로운 질서를 원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기득권정치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피청구인 측은 요즘 젊은이들이 순수하고 때문에 젊은 것이 선거권을 주지 않는 이유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포르노 비디오를 찍고 폭력영화를 만들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거권이 교육에 활용될 만큼 무모한 시합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가 인정되어야 사회발전이 있는 것이므로 항상 공익과 안정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은 1960년 제 3차 헌법개정에 의해 선거연령이 20세로 규정된 이래, 우리 사회는 의무교육 실시 및 확대, 중등교육의 보편화, 높은 교육열, 소득증대 등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국민정신의 교육, 의식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1960년 당시와 현재의 만 18, 19세 연령층의 정치관념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그들은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최소한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오늘날 변화한 현실과 세계각국의 추세에 비추어 우리도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허윤숙 기자

생태계 시장 개방 ... 먹이사슬 파괴된다

유명브랜드의 외래종들이 아무렇게도 얹어 판을 치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살고 있거나 들어오고 있는 외래생물들도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외래생물들은 외래어종, 외래 해충, 외래식물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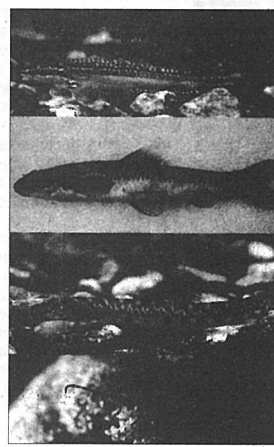
우선 외래어종이란 원래 자라고 있는 곳 이외에서 자라고 있는 어종들을 말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귀화종이다. 귀화종은 원 자생지가 아닌 곳에서 스스로 적응, 번식하고 있는 종을 말한다. 그 동안 황소개구리 말고도 우리나라에 도입된 외래어종으로는 잉크, 악어, 도마뱀, 이스라엘 잉어(참아), 블루길(월남잉어), 베스(큰입농어) 등이 있으며 이런 종들은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들어왔다.

한동안 퍼들했던 황소개구리는 자연종과 유육양식대상종 개발을 목적으로 1971년 일본에서 들여와 1975년에 전 5백여마리를 청원, 포항, 진해에 방사하여 자연증식을 위해었고 전국 각지의 농가에 분양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황소개구리를 버려진 호수나 연못에서 사육하여 식용으로 쓰려했던 원래 목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것이 사육장을 탈출하거나 유통망과 같이 흘러나와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다. 또한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전치되었던 참치(참치)는 블루길(월남잉어)과 베스(큰입농어)는 1970년대 초 사람들이에게 고기를 많이 먹게 하기 위해 정부가 들여온 외국 물고기로 특히 덤이 간성되는 것이 많은 양을 풀어놓았다. 특히 베스는 새우를 잡아먹는데, 새우는 다른 물고기들이 새끼를 잘 기를 수 있는 단백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수생식물의 줄기를 뜯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먹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

블루길은 우리나라 물고기의 치어(어린 새끼)를 주로 잡아먹으며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는 강한 성향을 지니 높은 번식력과 공격적인 특성으로 토착어종의 알이나 어린 물

고기 등을 포식함으로써 호수 생태계를 단순화, 황폐화시킨다.

모든 외래종들이 세계 어느곳이나 쳐들어와 그곳의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들어간 지역의 자연이 건강하면 외부에서 다른 종이 들어와도 번식을 할 것이 못하고 숨



환경오염과 더불어 외래종으로 인한 먹이사슬 파괴가 토종생물을 멸종 위기로 몰고 있다. 사진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놓인 토종생물들.

어서 살아가게 된다 한다. 그러나 심각한 환경오염이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서 자연 생태계가 건강하게 자리잡지 못하는 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종들이 순쉽게 그곳의 주인이 되어 번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환경오염의 문제도 요인이 되지만 이런 외래어종들을 들여올 때부터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철저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로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선(先)통관 후(後)검역' 제도가 불려오고 있는 외래 해충과 세균에 의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선통관 후검역' 제도는 지난 95년 초 WTO가 출범하자마자 기어코라는 듯 우리나라의 검역-검사 절차를 걸고 넘어지며 우리 검역청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자국의 농축산물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미국과 압력에 굴복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이 검역제도를 거쳐 지난 7월 1일 농수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서 대량으로 수입된 미국산 발효사육수 수입으로 자생하는 '캘리포니아 붉은 까치벌레'가 발견되었다. 이 벌레는 몸길이가 0.1~0.2mm로 감귤류의 잎이나 과일에 붙어 그 잎맥을 빨아먹으며 결국은 잎과 죽게 만드는 해충이다. 이 벌레는 우리나라에 없는 해충으로 우리나라산 감귤에 감염될 경우 감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해충으로서 재주지역에 유입될 정착하게 되면 감귤농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최근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고 있는 0.157 대당에 감염된 미국산 쇠고기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우리 생태계, 우리 농산물, 그리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외래 생물에 의한 피해는 결국 우리의 생태를 손상하고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무분별하고 미흡적인 정책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김주요 기자

학술 단신

'중등정치질서의 이해' 출간

우리 학교 아카데미가 출판한교수는 '중등정치질서의 이해'가 우리 학교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또한 아카데미는 지역적으로 석유에 의한 경제변수와 사회적 중요성에 의한 정치적, 전략적 분석, 그리고 유럽의 기독교 문화의 역사적 갈등 속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 문화적 특수성이 아랍인의 의식속에 뿌리깊은 정체성을 보이는 데 중요성이 있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연대기별로 4단계로 분류 1960년대에는 아랍통치사상, 1970년대에는 미소 냉전시대 환경에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권위주의를, 1980년대에는 코르바트프 등 중앙에 의한 신대륙 시대 중동지역의 인보에 대해 분석하였고 1990년대에는 신국경에 환경에서 걸프전쟁이후 중동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연구분석하였다.

'환경보호와 국제법질서' 출간

우리 학교 법학과 이정환 교수와 장필대 교수는 '환경보호와 국제법 질서'가 아시아학회와한국연구원의 법·인문 연구총서 여섯째권으로 출간되었다.

지구환경보호의 담의성은 누구나 공감하면서 실제로 지구환경보호를 실현하는 방법은 각각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구환경보호를 둘러싸고 환경론자와 자유무역론자,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매우 상이하다. 이 연구작업은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보편적 공동기반 원칙의 성립 여부, 그리고 국제 환경법이 국제법의 새로운 독립된 분야로 성립할 가능성 여부를 열거해 두고 시작한다.

이 책은 국제환경법을 학문적 체계와 접근과 실무용용적 접근이라는 양자의 요점을 수렴하려고 시도하였다.

소송상자 회의제도

회의제도는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하에 채권자와 채무법정(債權者)을 체결해 파산을 피하는 제도이다. 채무기업은 당장 파산을 면하고 회사를 되살릴 기회를 갖게 되며 채권단은 채무기업이 망해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회의제도의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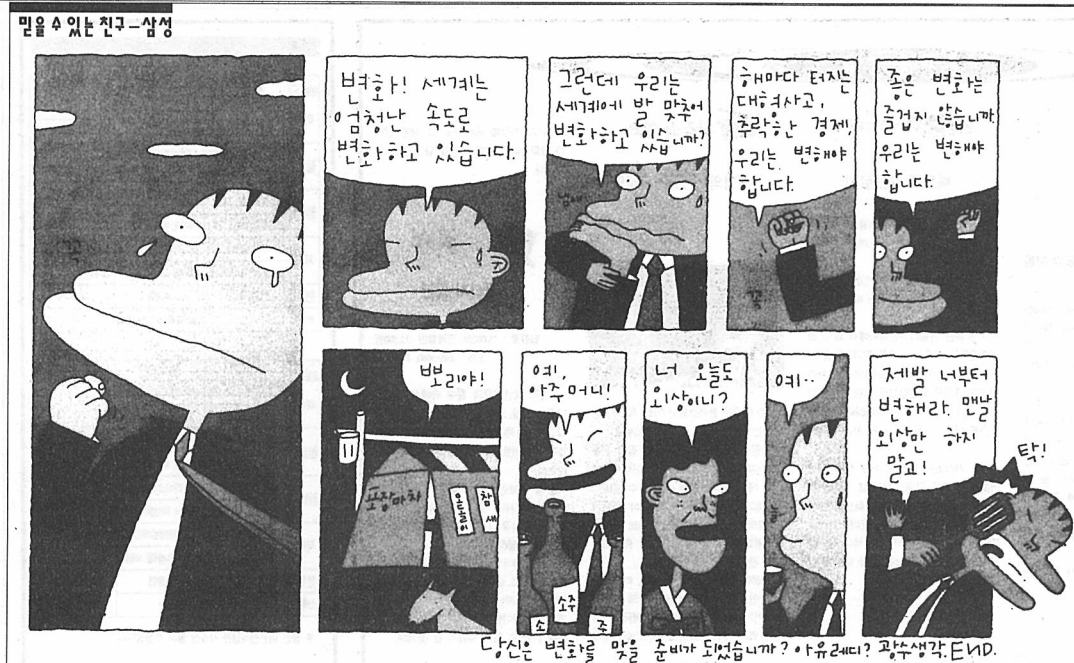
이 제도는 파산위기에 몰린 기업에 대해 부채를 동결, 도산을 막는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제도와 유사하나 채권자의 사전동의 없이 법원이 결정하는 점이 다르다. 또한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법정관리제도의 경우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임해 기업경영에 개입하는데 반해, 회의제도는 법원이 기업 경영에 전혀 간여하지 않고 기존 경영자가 기업경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해당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만 빚어낸다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하며 채권자와 채무 기업간에 채무 동결 기간과 방법 등 세부적인 회의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법정관리보다 신청요건이 엄격하고 결정이 더딘 결정이다.

한편 회의제도는 회계사 이후 인가 결정 절차가 회계사에게 그대로 이행되는 경우가 적어 협의가 중간에 깨지기 쉬우며, 채권자가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해 채권자보호에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주로 소규모 기업에 회의가 이뤄져 왔으나 대기업 중에서도 동진주식회 처음으로 회계에 의한 회계 감사결과를 공개 된 이후 새로운 회계회생 방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당신을 새롭게 하는 힘, 삼성에는 늘 변화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4> 외대풍물패 - 풍물패 변화 모색

신명나는
외대 문에
집단을 위하여

풍물패의 '살풀이'로 풍물굿 바꾼다

배우기엔 너무 짧은 2년 풍물패 생활



풍물굿은 대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풀이'의 장이 있다

제야무리 좋은 문화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심신을 괴롭히는 것이라면 신통 동 의하고 좋아하진 않지 않을 것이다. 문예 집단에 있어서 '풍물'은 어느새부터나 우리를 괴롭히는 '소울'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소리, 조상의 신령을 달래는 일소리의 한 줄이 어쩌다 이런 취급을 받게 됐는까. 물론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데 풍물연습 공간의 부족이, 대학입시의 비합조가 일조를 담당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가다가 학생들의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거부감의 또 한 크게 작용했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 그

러나 이글에서는 신명나는 풍물패를 만들 이기는 주체는 결국 풍물패 자신들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령에 대한 풍물 패의 고민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기로 한다. 단, 이글에서는 농악, 풍물 등의 용어를 가장 올바른 표기로 칭기라고 있는 '풍물'으로 통일한다. - 편집자

일반적으로 풍물굿이라하면 평과리, 징, 장고, 북, 소고, 나발 등의 기본적인 악기를 사용해서 관을 구성하고, 춤을 추거나 놀이를 베풀며, 집단을 통합하는

생산적 삶의 모습 및 제례의식을 나타내는 공동체적 문화양식을 일컫는다. 풍물 굿의 생명은 관제와, 아니 정확히 말해 사람과의 어우러짐이다. 그런데 풍물 굿의 생명이 위태롭고 있다. 함께 어우러지고 신명을 즐겨야 할 학생들이 풍물소리를 싫어하기 시작한 것이다. 풍물굿은 본래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양법의 보급과 함께 풍악이, 두레 등의 농촌공동체악이 보편화되면서 공동체적 문화양식을 기본으로 하는 풍물 역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선 중반에는 '패속(敗俗)', 해방 이후에는 '병음(狂音)'이라는 용어로 일찍이 의해서만이 아니라 지배층에 의해서까지 천대받았다. 그러다가 70년대 접어들면서 대학가들 중심으로 펼쳐진 우리것 찾기 운동 속에서 조금씩 명맥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워낙 짧은 단절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70, 80년대에는 우리문화와 원형 그대로 되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시되었다. 학생들 역시 단지 '우리문화'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하고 들어오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풍물하는 시대가 아니다. 풍물공연을 하면 일반화해한다는 같은 풍물패 학생들이 더 많이 참가하고, 행사전 시작하는 길은 '장상' 하

면 걸 또 하는군'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풍물굿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필요할 때다. "문화는 사람이 학생들보다 적어도 반보 정도는 앞서가야 하는데, 오히려 제만치 처져 있는게 문예악단의 현실이다"는 김원경(소소리대, 상경·경계 2학년)의 지적은 대부분의 문예악단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한편, 풍물패의 변화형태 중 하나로 '살풀이'를 제시하는 이도 있다. '살풀이'는 풍물굿의 기본가락을 일정정도 습득한 이가 사물(장, 징, 장고, 북)을 가지고, 춤과 자유롭게 조합해서 연주하는 형태를 말하며, 원래 있던 살풀이나 사물무용에서 새로 만든 사물이다. 그러나 사물놀이에 대한 풍물패들의 생각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오죽걸(신바람, 서양·불어 2학년)은 "사물놀이가 풍물하는 건 사물이다. 그러나 사물놀이는 풍물을 철저한 관제와 어우러짐보다는 관제를 철저하게 개관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풍물 정신에 대한 도전이다"라며 사물놀이를 지나치게 치우치는 풍토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다.

그렇다면 풍물과 변화가 더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풍물패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첫번째 이유로 그들은 예전 비해 풍물을 취미생활로 대하는 경향

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전반적인 분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움직임이 상당부분 풍물패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연히 풍물패에 대한 고민의 영역과 열정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제시하는 이유는 풍물패로써 활동하는 시기가 2년을 넘지 못한다는 데 있다. 2학년 정도의 시기를 거치면 조금씩 풍물에 대한 감이 있는 고인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때쯤이면 풍물패를 떠나게 된다. 고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도, 속속되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풍물패의 대부분이 과풍물패라는 한계도 지적한다. 그러나 과풍물패는 학생들과의 교류 측면에서 오히려 장점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는 외에서 제외한다.

풍물굿은 대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풀이'의 장이 있다. 갈등·고뇌의 시간을 극복하고 화해·대응의 한마디로 발전하는 것이다. 풍물패가 지적하는 문제들도 갈등과 고뇌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풍물과 맛의 변화를 일구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굿은 푸지게 (넉은 마음으로) 푸는 것이다.

문화부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장성욱
(동학·마인어 2)

영토문제 연구동아리
- 독도문제연구소

외로운 섬을 알리는 등대지기

출로 외로운 섬 - 독도. 독도는 사실 국제법상으로 공해상의 양호로 규정되어 있다. 이런 일체의 양호에 불복한 독도를 일본이 군함을 출몰하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본에서 일부의 우익들은 독도를 결코라도 독도를 탈환하기 위해 갖은 억지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을 정도이다 그 기치를 잡자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일본과 우리 사이에 더 큰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함에 있어 독도가 어느 쪽의 소유냐에 따른 각국의 소유 해상 면적이 큰 차이를 내기 때문이다. 또한 독도 주위의 해일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의 가치도 많다. 현재 우리 어민들의 어획고의 많은 부분이 그곳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일본과의 영

토 싸움에서 결국 독도를 탈환 당한다면 그 손실이 얼마나 막대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 학생으로부터 우리 '독도 문제 연구회'는 1987년에 외대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작은 학생 단체가 국가간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더라도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과 전시회를 통해 독도의 문제를 조금 더 널리 알리고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여론의 힘을 모아서 독도를 온 국민이 느끼게 하고 일본이 다시는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일본의 망만이 터졌을 때만 갖는 잠시 잠깐의 관심으로는 독도를 지킬 수 없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가 어느새 빼앗겨 버릴지도 모른다.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이성으로 맞서 나가야 할 것이다.

2회 인권영화제 이렇게 열렸다

'인간을 위한 영상' 탄압 넘어 상영

2회 인권영화제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이미 예고된 일이다. 인권영화제는 한밤에 위해되는 반(反)인권영화인 사전심의를 거부한다. 사전심의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인권영화제는 아무런 취지가 좋고 작가가 훌륭하더라도 불법영화로써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예초 일기기로 했던 동국대와 기독교연합회관이 정부의 압력으로 상영장 대회를 불허하고 홍익대도 정부의 압력을 받은 학교당국의 불허로 내정된 행사장인 우암에서 학생회관 1층으로 옮기는 일이 발생한 등 상영장 선정부터 반대를 받았다.

영화제가 열리는 동안에도 학교측의 상영장 불허와 단절조치, 경찰의 행사장 침탈 등 비합리적인 탄압으로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주최측의 신속한 대책수립으로 계획된 상영장은 모두 상영되었고 시민, 학생들의 꾸준한 관심으로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집행위원장이 사촌식(인문운동사랑방

대표)씨에 대한 경찰의 출두 요구가 있어 탄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쇼아'를 보러왔다는 오광선(송심대·28)군은 "인권영화제를 막는 한 정권의 인권의식 대해 알았다"며 영화제를 탄압하는 한 정권의 인권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인권영화제 홍보 담당 최은아(28)씨는 "홍대생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TV로 방영하는 영화를 못 보게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정권의 문화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비난을 지적한다.

한편, 영화제 준비부 측은 영화제 기간동안 외출 못 한 사람들을 위해 상담, 교회 등에서 연장 상영을 계획하고 있다.

김선식 기자

인권영화-쇼아

(1995) 클로트 랑즈만 프랑스
제작 기간 11년, 총 350시간의 촬영 필름을 가

지고 아우슈비츠, 트레블링카 등 죽음의 수용소에서 가스스로 살인한 유대인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한 인터뷰가 9시간 반으로 편집된 대장편 다큐멘터리이다. 이 영화에는 자포비아나 매글루 등 죽음의 시설물은 없다. 그러나 아무도 이 방대한 인터뷰를 지루하지 않게 느끼지 않는다. 밀려오는 충격 속에서 계속 다음 인터뷰를 기다리게하는 신비한 영화이다. 그 인터뷰 속에 나사스 체형에서 유대인들이 입은 정신적 외상의 깊이에 짐작하게 된다.

'쇼아' 이후 나온 '유대인 리스트'가 감성적인 눈물과 함께 볼 수 있는 해피 엔딩을 가진 영화지만 이 영화는 눈물을 흘릴 여지가 없다. 마지막 영상은 끝없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 영상에서 집단학살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문화 단신

서울

상대 영화학회 두번째 영화제개최

상대 영화학회 '아너더 뷰(aNOTHER VIEW)'가 두번째 영화제를 오는 6일(월)부터 8일(수)까지 3일간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부정의 시선, 시선 밖의 영화'를 기치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주류적인 영화관과 관습에 대한 거부와 함께 우리 관심 밖에 있는 영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다.

이번 영화제에는 키노 선정 1995년도 아카데미 작품상이며 1회 부산국제영화제 최고의 흥행작이었던 '레드'를 개막작으로 미국 독립영화 3대거수 아벨 케라와 하비 케이터의 '야질'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바스캇볼'이 '리틀'을 총 7편의 작품이 선보인다.

한편, 회장 정우식(상경·경영 4)은 "영화에 대한 고편된 시선 보다는 관객 스스로가 평가하기를 기대한다"며 영화제에 오는 관객의 올바른 관조의 자세를 강조했다.

서반어과 풍물패·원어노래 공연개최

오는 7일(화) 대학원 104에서 서반어과와 풍물패 '원어노래'가 첫 번째 정기공연을 갖는다. 마당극·복음·관공과 살풀이가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난쟁이' 형식으로 표현된다. 마당극은 소흥하리 가위 위인 어머니의 어려움에 대해서 풍자의 해학으로 그리고, 단소음악과 서곡의 리믹스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색다른 방식의 복음과 재구성된 공연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원어 노래패 LOS NOVOS(연인들)가 오는 10일(금) 대강당에서 첫 번째 공연을 갖는다. '하루도 다시나'를 주제로 스페인 민요, 한국 노래, 팝송 등이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매우 화려한 리듬의 음악이 선보여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할 것이다. 회장 이상민(서양·서반어 2)은 "원어 공연 단체가 어려운데 내기 정도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공연 내용도 색다르게 구성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영교과 원어연극 워크샵영어

영어교육과 원어 연극 '우리까지'가 오는 9

일(목)부터 11일(토)까지 3일간 대학원 소강당에서 첫 번째 워크샵 'ALL God's Children Cox Wings' (신의 아이들에게는 모두 날개가 있다) (원주: 유진일, 연출: 정성호)를 갖는다. 후·백인종의 대립의 인종차별 문제를 인간의 인종차별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신의 문제를 중심 내용으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희생을 다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연된다. 회장 정성호(서양·영교 2)은 "종교와 첫 공연으로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며 자신감을 보인다고 말했다.

노래페연합 오는 10일 공연개최

오는 10일(금) 노년극단 'ALL God's Children Cox Wings' (신의 아이들에게는 모두 날개가 있다) 노래페의 연합공연이 있다. 2학기를 맞아 노래페의 활약을 되찾기 위해 처음 시작했을 때의 감정을 찾자는 의미의 '처음처럼'을 주제로 조국과 종훈의 '처음처럼'과 통일노래 한마당에서 불러왔던 노래들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는 영어와 노래, '열린'·종국과 노래 '꽃같은 마디'를 비롯한 10개의 노래가 참여한다. 이 장에 출연 첫 시도인 노래페 연합공연은 그 큰 규모 뿐만 아니라 수준에 있어서도 크게 보기에 공연이 될 것이다.

정보통신이 빠른 나라 - 스피드 코리아

SK Telecom

처음 시작한 날도, 한달에 한번 그날도
저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처음 가입할 때의 가입보증금 부담이나
매달 한번씩 나오는 요금청구서 부담 때문에
망설였던 이들도!
하지만 이제 스피드011은 가입보증금 부담도 없고
기본요금도 1만원이면 된다고 걱정없이요.



스피드011 - 이제 부담없이 가입하고
부담없이 쓰십시오

스피드011은 가입보증금 20만원이 필요없습니다

가입보증금 20만원을 보증보험료 2만원으로 대신해 드립니다.
가입금액을 전국 저가인대리점에서 스피드011 신규가입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및 저축통장 사본을 통장에 주십시오
-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보증보험 이용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고객은 제외됩니다.
- 보증 보험기간은 3년이며, 요금 자동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 보증금 상환시 2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본요금 1만원의 SAVE요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본요금을 기존 일반요금의 절반 수준인 1만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요금 할인시 최고 50%까지 할인되는 SAVE요금제를 신선했습니다.
하루 2~3분만 정도의 소량 이용 고객의 요금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한 통화는 65초 기준입니다)

- 기본요금: 10,000원
- 통화요금: 1초당 42원/21원(비밀번호/할인시간)
- 요금할인 적용시간: 평일·토요일(21시~익일08시), 공휴일(전일)

※고객센터(112) 00-2200 · 112(02)0000-011012 · 112(02)0000-011012 · 112(02)0000-011012
· 112(02)0000-011012 · 112(02)2200-011012 · 112(02)2200-011012 · 112(02)2200-011012
· 112(02)1456-011012 · 112(02)1456-011012 · 112(02)1456-011012 · 112(02)1456-011012
· 112(02)1456-011012 · 112(02)1456-011012 · 112(02)1456-011012 · 112(02)1456-011012

※112(02)1456-011012 · 112(02)1456-011012 · 112(02)1456-011012 · 112(02)1456-011012

한국인의 통신생활

빠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피드011 -
만족은 크고 부담은 대폭 줄었습니다

오르는 부채 · 내리는 소값 ... 농촌이 죽는다

현실적 대안없는 세계화 · 경쟁력 논리문제



“바늘서 대롱! 감수관, 일조, 기온 최적”
“자녀에 수해 받고 사살해 죽는다”
지난 8, 9월 농촌이 쾜던 기대로 들떠있는 언론의 보도는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수입개방압박에 완강히 굴복하여 쇠고기와 쌀을 제외한 모든 농축수산물에 수입을 전면 개방한 7월 1일 이후 급속도로 어려워져가는 농촌의 현실이 언론에 의해 다른 쪽으로 호도될 무렵, 농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고 소값 폭락 규탄과 농산물 가격보장을 촉구하고 있었다.

지금 농민들에게 무엇보다 심각한 위협은 부채문제다. 김영삼정권이 집권한 93년에 농가부채는 평균 680만원에서 94년에는 790만 원, 95년에는 910만 원, 96년에는 1170만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매년 1.7배씩 증가해온 농가부채 급증의 주요인으로 농축수산물 시장이 완전개방됨에 따라 농산물가격이 전방위로 폭락한 것과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김영삼정권의 신농업정책(신농정)이 지목된다.

농산물 가격의 전방위 폭락은 농산물 수입 전

면 개방에 따라 재벌들의 무분별한 수입이 가능해져 수입급증을 야기시키는 것, 한 품종의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미봉책으로 무작정 수입을 늘리는 것 등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농민”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일인원 신농정으로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농업구조조정에 투자하였다. 42조원이 넘는 농업투자는 농민들이 목숨걸고 싸웠던 지난 100년의 성과였다. 그러나 정부의 투자방향은 전방 농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신농정은 농업의 전방화, 규모화와 이를 위한 생산기반 정비와 시설투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구조개편사업이 중심이다. 이것은 감으로 그칠새 보이지 않는 속은 완전 수입개방을 전제로 한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농산물 가격경쟁력과 가격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한우산업발전정책대로 소값 폭락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년전 3만 원이 넘던 큰 소 한마리 가격이 현재 2만 원안에서 왔다갔다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150만 농가의 절반이 넘는 80만 농가가 소를 키우고 있다. 마땅히 지을 땅이 없어 소를 키우는 경우가 많고 이런 소 사육농가의 대부분이 10마리 이하의 소를 키우는 열세세 규모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소수의 대규모 소사육농가를 집중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쇠고기 가격을 30%로 하향조정하고 2001년까지 환소 값을 2백만원으로 낮추어

의외소와 가격경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 하에서 현재 소사육농가가 입은 총 손실액은 4조 3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사료비는 단 1%도 내리지 않아 우리 농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열세세농가들은 소키우기를 포기하고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이런 현 농업의 위기는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25%이하로 떨어졌고, 식량 비축량은 FAO가 권고하는 7백만톤에도 훨씬 못미치는 2백만톤 이하로 감축되었다. 또한 농지가 급격히 훼손되었고 1차 구조개편 사업 실시후 1백만명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는 것 등은 우리 민족살이를 앞둔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이다. 이와 관련 농민농민회총연맹 간사 이혜복씨는 “우리 5백만 농민은 사할을 걸고 길릴 삼강오륜의 농정실책에 대한 규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식량자급률과 농축산물 대중적으로 판매를 하고자 한다. 또한 농업문제의 정치적 해결방안인 WTO형 특별법의 시행방안을 제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데도 중점을 두고 투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월별부터 진행될 도 단위와 집회와 투쟁을 모아 다음달 ‘신농정규탄과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37개전국농민대회’를 열어 반미반정부투쟁을 벌일것으로 한 농업 위기가 농민들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적 문제임을 알려달라 당부했다.

이윤숙 기자



이승규

PC통신 글 올리기가 두렵다

정권의 통신 길들이기 의도, 3명 구속

컴퓨터 통신 게시판에 올린 특정 정당에 대한 후보에 대한 글을 올린 사람들이 지난 2일 (목) 처음으로 공작선거 및 부정선거발발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은 컴퓨터 통신 천리안과 유니텔의 게시판과 토론방 등에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홍종만(26, 한국과학기술원 학생), 이도재(28, 장원중(35) 등 3명을 구속했고, 비슷한 글을 올렸으나 정도가 덜한 이모씨(31, 여, 보훈의료원) 등 9명은 불구속했다. 이들이 통신공장에 올린 글을 살펴보면 “법대로라면 저 00들은 권대로 빠지고, 지금에 와서야 거짓말을 일삼는 천리안과 이윤 000”, “이윤 000나 권00을 농가하는 치미바람 정치가 예견되는 000”라는 식의 대선 후보에 대한 의견이다.

검찰의 위법성 여부를 재는 재판을 보면 ‘당선 또는 낙선하기 위한 명백한 의도’가 개제문에 들어있어야 처벌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통신장에 실리는 글에 대해서 선거법의 적용범위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선거권위를 해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이 만만치않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연대검찰협력팀의 김영식(30)씨는 “선거운동이 아닌 일반인들의 생각을 통신장에 올렸다고 해서 구속한다던 4천만 국민이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야 한다”고 말한다. 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는 “이후보는 이래서 좋고 저 후보는 이런 점에서 좋다. 그래서 누구는 당선되야 하고 누구는 당선되면 안된다”라는 식을 예외를 주고 받는다. 이런 일반인들의 의견이 과연 특정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명백한 의도라고 할 수 있는가. 김영식씨는 “그렇다면 당선자도 검정이어는 술집을 단속한다면 그간의 사람들 모두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 된다”고 말한다.

또한 검찰측은 “컴퓨터 통신상에서의 의견은 글로 남고 4천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한다. 즉 그

글의 선동성을 문제삼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으로 교육받은 높은 국민성을 생각한다면 이런 글들이 일반인을 선동할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은 지나친 비아냥이 아닐까 싶다. 또한 이런 글의 경우 이메일 수첩은 글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우나 이윤만 지나면 그 글을 찾아보면 서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김영식씨는 “통신상에 올린 글로 인해 사법처리 받는다는 일은 정치적으로 선전효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그 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 낙선자의 자살이나 군국주의자들의 글을 게재하는 경우는 있지만 후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법적처리를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 나라는 미얀마나 싱가포르 같은 정치적인 자유가 압박하는 나라 정도다.

통신공장에 무리한 광권제의 채택은 통신장문자들은 “이런 조치는 통신인들의 소수 기득권을 하게 만들어 통신장에 대한 ‘경의

슈퍼 301조 발동, 내정간섭 · 주권침해

시론

한미간 자동차협상의 결렬로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자 국내외에서 기이하게도 한미 자동차협상의 위기로 아슬아슬한 경제가 정국이 예상된다.

한미간 자동차협상이 타결되지 2년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서 미국이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관행을 위해 슈퍼 301조 발동을 결정하자 8월 8일까지 대미무역직자가 71여명에 달하는 우리 경제가 발끈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슈퍼 301조 발동을 결정한 이유는 대략 3가지다.

첫째 한국시장의 수입차 시장규모가 1% 수준에 머물렀으므로 극히 폐쇄적이라는 것과 한국이 수출을 살피는대로 세계적인 공급과잉 상태를 완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시장에서 수입차의 비중은 10%에서 15%로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고, 특히나 중대형차급에서는 수입차의 급속히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자동차 과잉생산문제는 이미 세계 자동차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둘째는 승용차의 관세를 현행 8%에서 미국 수준인 2.5%로 낮추라는 것이다. EU(10%), 캐나다(8.5%), 호주(22.5%)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승용차(트럭, 중형비 등 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관세)가 25%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따져보면 지나치다는 생각마저 든다.

셋째로 미국의 배타적 관세체제가 수입차에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차가 물론과 관세기 비싸다는 사실을 일반국민이 인식하게끔 보도한 하더라도 한국의 관세체제가 국내 교통사고와 에너지 절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본, 이탈리아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이기에 때문에 이 또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시장 개조와 관련, 미국의 주장은 이미 지난 95년도 한미간 협상에서 정명이

되었다. 당시 협상은 난항 끝에 현재와 내용을 합의했으나 협상이 타결되지 2년만에 미국은 다시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미무역직자가 97년 8개월동안 71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단지 자동차 한 품목과 시장점유율만을 이유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는 것과, 그 적용대상에서도 한국이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한미우호, 우방관계를 맺는 말은 허구에 불과하며 자국의 이익주의 관행을 위한 포장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한번 드러난 셈이다.

한 나라의 경제체제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정책을 넘어 미국이 아직 도 한국에 대해 제국주의의 식민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과거 발시장경제, 쇠고기 시장경제 협상에서도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불평불만을 강요해왔다. 냉정상태에서도 70여년에 걸친 쇠고기의 유통을 90일로 연장하라는 것은 한국 국민은 적은 고기를 많이도 좋다는 오만하고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예에 불과하다. 더욱이 최근 0-157까지 발전된 쇠고기에 대해서조차 리해를 하지 않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위 아니라고도 무었이겠는가.

지금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기아자동차와 군본적인 정책의 혼인으로 심각한 몰락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은 한국의 자동차산업에 바람막이로 떠나는 꼴이 될 것이며, 결국 한국경제 전체를 아사상태로 몰아넣을 것일 것이다.

전 국민적인 의지를 모아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시파와 슈퍼 301조 발동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때다.

이승규

(민주노총 자동차연맹 선전부장)

기아, 이대로 넘길 수 없다

6개 자동차노조 파업 불사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이재승)와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지난 9월 25일(목)부터 명동성당에서 ‘기아자동차 법원판과 강경시 정세부흥’의 시위를 주창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또한 기아자동차 노조는 29일(월), 30일(화) 양일간 시한부 파업을 진행했다. 이재승 위원장은 “정부와 재관료의 기아자동차 법원판과 의도는 3차인수를 통해 삼성에 기아를 넘기려는 조치”라고 밝히고 “10월 6일 최종결정에서 만일 기아가 법원판으로 결정될 경우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성희 대외협력국장은 “삼성자동차를 승인했

을때부터 삼성연으로 통하는 경직성 부흥력이 걸로서는 경제제리만을 앞세우고 있지만 승인 삼성에 기아를 넘겨주려는 것”이라며 “이번에 기아를 살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 대우를 포함한 6개 자동차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아가 법원판에 들어간다면 곧바로 기아 및 1만7천개의 협력업체가 부도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기아를 법원판, 3차인수 계획으로 몰고간다면 연대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표통신 - 천리안

▶ 이세요?
1. 1만 원의 국내 전화 요금과 인터넷 가입비가 무료입니다.
2. 인터넷 전화 (상대 무료) 서비스, CD-ROM 및 기타 자료를
당신에게 PC통신 사용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채팅 FREE!

▶ 천리안 기술소식
1. 1만 원의 국내 전화 요금과 인터넷 가입비가 무료입니다.
2. 인터넷 전화 (상대 무료) 서비스, CD-ROM 및 기타 자료를
당신에게 PC통신 사용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대선이 있는 풍경

1. 대선전 정치, 어쨌든 돌아가나
2. 대선과 언론보도
3. 무언가 준비하는 공안정국
4. 민족민주운동전열 무엇을 준비하나

TV토론회를 해부한다

토론회 아닌 토크쇼 수준

TV토론위원회 구성·합동토론회 실시 필요

선거고질병 편파보도 여전

이회창 1000여번, 김대중 400여번, 권영길 단 4번 보도

통령선거 TV토론회 제도화, 이젠



15대 대선을 석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텔레비전 토론이 각 가정의 저녁을 고정시키고 있다. 6월에 방송3사가 신문을와 공동으로 텔레비전 토론을 연데 이어 7월말에는 3사가 합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얼마전에는 MBC가 텔레비전 토론을 가졌다.

이런 텔레비전 토론은 그동안의 선거풍토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째로 텔레비전 토론은 대선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대선 후보가 과연 대통령이 될만한 자질, 즉 소양, 식견, 지도력, 도덕성, 정책 등을

선명의 여야 후보가 토론회에 출연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이 없이 '대표'를 갖지 못하거나 지지율이 낮은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공명당(민주노동당) 후보의 경우 민족민주운동전열의 대표로써는 정국연합과 우리나라의 대표적 노동운동 단체인 민주노동당의 추대를 받은 점을 감안한다면 대표성 문제가 텔레비전 토론의 배제 이유는 되지 못한다. 의견이 상당하다. 또한, 신한국당 경선 후보였던 최병렬의 경우 지지율이 1%도 되지 않았음에도 각종 토론회에 출연했던 전례를 생각한다면 지지를 얻지 못한 후보는 아니나, 둘째로 본의 아니게 불공정한 토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질문자가 다르거나, 질문의 질, 질문의 난이도, 추가질문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방송남자에 따른 공정성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유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경우 두번째 이후의 토론자는 모방답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첫번째 토론자보다 훨씬 유리하게 된다. 또한 현재처럼 보충질문이 출현할 때까지 질문이 없는 경우 후보의 답변이 모순이 생길 수도 있다. 즉 앞의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다를 지라도 추궁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지나치게 언론인 중심의 폐쇄성으로 인해 전문성의 부족과 공정성의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민연) 김유진 간사는 "우리나라의 언론인들은 정치권에 잘 몰라 나중에 정치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언론과 정치권의 관계에서

항상 언론은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종신이나 대선 등의 선거가 있을 때면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 그러기에 언론은 그 어떤 단체와 개인에 비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선거 고질병인 언론의 편파보도는 더욱 더 심해지고 있다.

지난 달 22일(월) 프레스센터에서 선거검거 보도연대는 8-9월간 신문과 방송의 선거관련 보도를 모니터링 총평을 발표하였다.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전의 종신과 대선에 비교하여 불공정성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이례적으로 야당후보의 지지율이 여당후보에 비해 높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목)을 기점으로 각 후보에 대한 시간차별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모 방송국 9시 뉴스에서 18일(금)의 경우 여당후보 관련 기사는 한쪽지로 배정되고 야당후보들은 하나의 쪽지에 모아서 발표하였다. 이러한 방법의 감소 구시대적이고 요즘은 시간 배당은 거의 공정하게 하되 회의로 '세력'의 차별을 주고 있다.

지난 10월(수)에 방송된 SBS의 '권력대륙'과 '정치보안'은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에 관한 뉴스와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에 대한 뉴스가 다른 경우이다.

이회창 후보의 경우 1분4초 중 단독 화면이 4초로 동일한 각도와 화면이 반복되어 보기 좋았다. 이와 대비하면 김대중 후보의 경우 평균 3.5초당 10초의 화면이 교차되면서 보기에 산만했다.

신문보도에서 이회창후보와 김대중후보의 기사면적도 보도 일간지 차이가 난다. 올해 6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조선일보에서 이회창 후보 관련 기사를 1000건 다루었으나 김대중후보는 작년 12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425건을 다루

권력지향적 보도, 민주주의 토대 흔들다

편파보도로 '민심' 변화 가능성 우려

지난 9월 30일 대구에서 열린 신한국당 전당대회로 전후로 한국언론은 온통 신한국당 관련 내용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이는 이례적으로 여당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3위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의 내분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과 지면을 신한국당 관련 기사로 채운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동안 정치보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일명 '개입식 보도'가 최근 언론에도 그대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특히 '신한국당 개입'으로 대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한국당의 미래에 대한 언론의 추측보도가 남발되고 이러한 흐름으로 언론이 대선에 대한 의제를 신한국당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것은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강성광장을 마치 대통령을 뽑는 것처럼 비유하게 보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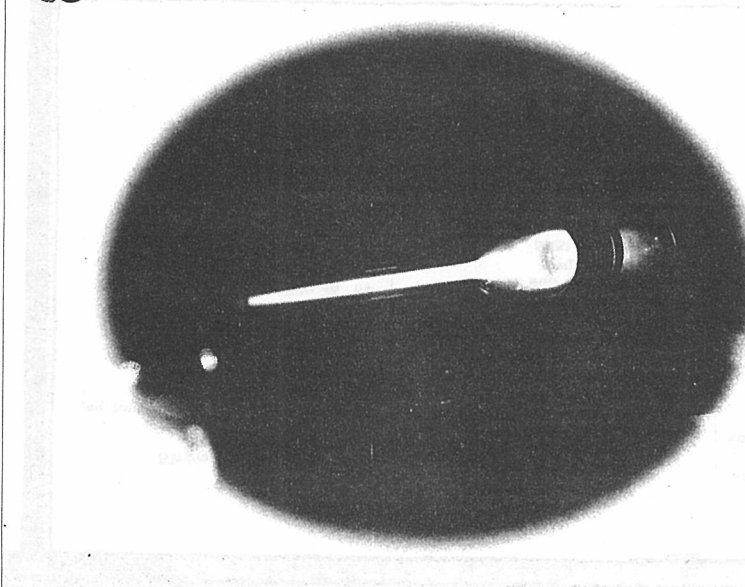
다. 특히 동아일보의 10월 1일자 1면 머릿기사로 '〈신한국당〉이회창 '세종대왕' 3집시대 마감 선언'이라는 2단 첫째줄로 이회창 후보를 부각시켰다. 뿐만 아니라 계속 3위를 고수하던 이회창이 2위로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옆에 중간머리로 실렸고 머릿기사 아래에는 1단 크기로 '〈세종대왕〉 조카왕 이남욱 서방언론과 첫 회견'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따라서 이날의 1면 편집과 기사 내용 모두 여당후보에게 매우 유리하게 우호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한편 군소후보에 대한 언론의 의문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의 경우는 노동계 대표 조직의 위원장으로서 진보전선의 조직적 결집에 의한 후보라는 것과 지난 총선거 과정에서 그 지도력을 일임 검증받은 후보라는 점만 보더라도 군소후보와 차별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선거때만 되면 어쨌든 불공정하고 각후보들은 언론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선거 기간에 유리하게 언론을 이용하라고, 야당은 편파보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라 한다. 연대선거에서 선거운동 예산도 그에 따른 위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무한정 끌고 가는 것은 언론의 중립성이 도덕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안은 대선 때 때론 당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빛은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전력



전구에 필라멘트가 없다

우리생활을 한게 밝혀주는 항등등과 백열등..... 그러나, 좀 더 효율적이고 오래쓰는 전등은 없을까? 한국전력 신기술개발을 통해 개발된 것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조명분야의 혁신을 위해 21세기의 빛을 바꾸어 갈 '무전구 형광등'의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보다 깨끗하고 질 높은 에너지를 개발하여 문화생활 향상과 환경보전에 앞장서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 무전구 형광등이란?

전구 내부에 필라멘트나 전극이 없이 아크로이드를 용해하여 발광하는 구조를 전구 내부의 형광물질이 발광시키고, 이때 발광하는 빛을 전등에 투과시켜서 빛을 내는 구조를 무전구 형광등이라 합니다.

■ 특징

- 고효율: 100 - 140 lm/W
- 긴 수명: 약 1만시간
- 무공해: 발광물질로 합성 사용
- 높은 전압: 80 - 90
- 새로운 자석선이 없음
- 약한 전압으로도 쉽게 작동

■ 발광 원리

전구 내부에 아크로이드를 용해하여 발광하는 구조를 전구 내부의 형광물질이 발광시키고, 이때 발광하는 빛을 전등에 투과시켜서 빛을 내는 구조를 무전구 형광등이라 합니다.

■ 각종 전등의 수명 비교

전구 종류	수명 (시간)
일반 백열전구	1,000
절전형 백열전구	2,000
형광등 (일반형)	10,000
형광등 (절전형)	20,000
무전구 형광등	20,000

글 순서

1. 학생회와 학생들의 공통분모는...
2. 공인단입의 실제
3. 한층, 그들은 과연 이적단체인가
4. 학생회, 그 혁신의 현장을 찾아
5. 좌담회-학생운동의 재도약을 위하여

작년 8.15 연세대 통일부장과 올해 5기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범식 이후 정부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언론을 통해 반한총련 이념적 심기에 주력했다.

이의 영향으로 많은 학생들이 한총련을 꺼려함과 동시에 각 단체 학생회나 과학생회 또한 학생운동부터 의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대부분의 학생회와 학생운동은 2학기 사업의 중심으로 밀리고 있다.

우리학교에서도 학생회 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과학생회 단위에 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우리학교 학생회 일꾼 중 한 명을 만나 혁신을 위해 애쓰는 고민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점 등을 이야기함으로써 학생회와 학생 간의 관계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권갑자

'이번 우리와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성공할지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수들로부터 외면받지 않을 수 있을까?' 등의 고민을 하고 있는 중국어과 학술부장 하남진(33)은 연일 학생회 혁신과 행사에 대한 고민으로 하루를 다 보내고 있다.

그도 그의 친구들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군대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도 하지만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과학생회와 학생 간의 관계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학·독소조항 점검 - ④ 역사적 배경과 폐해

엄정한 학사관리... 사회문제 외면 '숨은 뜻' 정권위기마다 학생자치 탄압 악용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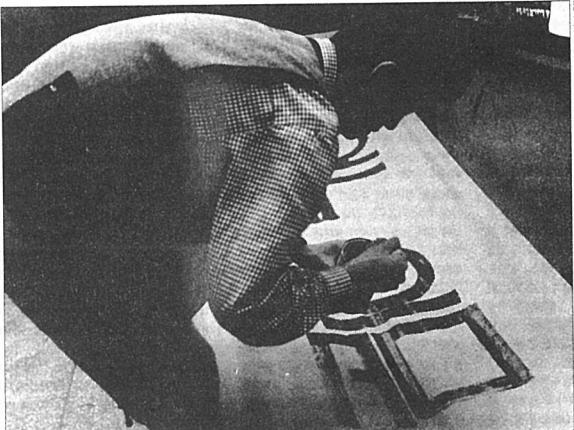
현대사 속에서 대학은 한국사회 진보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그런 이유로 늘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정권은 그 탄압의 무기를 '학칙'이라는 법·제도적 장치, 이를 위기에 몰아넣어 위협했다.

그 학칙들중에는 이미 사회화되었던 정권이나 내 학당국이 필요할 때마다 탄압의 구실로 부활하는 조항도 있고 학생들의 투쟁으로 사제되는 것들도 있었다.

공인공통이 되어버린 때이다. 새롭게 바뀌어온 학칙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것이 지금 학생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권갑자

최근 몇 년 사이 외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단연 91년 '정원식 국무총리실리 달걀 사건(6·3사건)'이다. 수많은 학생을 구속·수배로 몰아넣은 이 사건 이후 대학한국이 처음으로 손



학생회사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선전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혁신과제로 꼽힌다.

수 없이 일단 학업은 접어둔 상태다.

그의 하루 생활은 과 세미나실에 틀어박혀 있는 것으로 시작된다. 과 세미나실에서 하루 계획을 세

운 그는 이번에 기획하게된 '97 중국어과 학술 영화회고전'을 위해 노천관 지하에 있는 영상 사당만 방으로 들어간다. 이전에 어학의 활동,

부담만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다보니 학생회 대부분이 재계가 되어 참여도가 낮아 학생회 일꾼들이 더욱 힘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그는 나흘째로 이어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중

이다. 그 형 애로, 행사준비 시에 간부 뿐 아니라 되도록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계획했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의 성취감·보람 등을 학생들이 느꼈으면 자신이 바로 학생회 일꾼임을 인식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번 총MT에 이를 실행해 봤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생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에도 높아져 학생회의 활기가 되살아

났다. 또 예비역 선배들과 저학년 간의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 축구대회를 자주 가져 선·후배들 간에 거리감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으며 이제 예비역 선배들이 과 세미나실에 피하고 싶은 공간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 그는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라는 가치를 갖고 나선 한총련의 문구 중 학문적, 생활적인 부분이 있어 학우들이 함께 느끼는 것이 바로 과 학생회 혁신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바로 한총련 혁신을 위해 최소 단위로 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과학생회 일꾼들이 혁신해야 할 점에 대해 그는 학생회 일꾼들의 통편적 생활방식 즉 수업에 잘 안들어가고, 술을 마시고 과 세미나실에서 자는 등의 행동이 학생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

음을 지적했다.

또 일꾼들이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함께 학생회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기학생총회 안건 등 중요한 사안을 충분히 선전할 수 있도록

그는 이의 해결을 위해 집행부 회의를 통해 각 간부들의 생활태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수업에 열심히 참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매일 밤 11시 이후에나 행사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그는 학생회 간부의 일상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위 글에서 나타나 있듯이 그들도 일반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특강은 고민을 하며 그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학생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총련 출범식 이후 계속되는 공안탄압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학생회 일꾼들이 우리 결에는 참으로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단대학생회, 총학생회, 한총련으로 이어지는 학생운동의 중심 세력들은 본분을 다시 일깨워야 한다.

홍연희 기자

3류대학 청와대

3류 대학의 청와대의 경제학 교수 학생들의 성격을 공개했다...

"두환이는 40점! 태우는 30점! 영삼이는 20점!.....영삼이! 네, 정지도 잘지나지 경제도 잘지나!! 어떻게 실력도 청와대에 들어왔냐? 3류중에 한참 3류이면서..."

이에 영삼이 발끈하여 "전 학생을 잡는다는 일꾼인데..."

게 생각할까? 대중문 왕, '무소 내!'가 치라는 대로 말도 잘 듣고 일글도 이쁘구만" -은-

어느 날 교수를 먹고 말하곤 나 크로니를 자, 병원에 가니 0-157에 감염되었다. 감염된 사실을 안 크로니를 자, 얼마만 미국대사관에 찾아가니 미 대사 '검역을 통과했으니 우리는 책임없다'고 일관, 최가나 크로니를 자 청와대로 달려가 피켓시위를 벌이자 잠시 후 나타난 YS 할 "고기까지 마린달이"야? 더 열받은 크로니를 자 '당신은 고기 인덱스?'에 의해 YS '난 우리나라에서 검역 통과된 쇠고기 안 먹는 다'

Ys와 0-157

요즘 대외안이 대중평론에 게 잘 보이기 위한 몸짓이 장난이 아니라는데... 페인트 칠과 재치보 모지 리 들어버리기도 봐도 개웃. 아스팔트 새로 깔아 비라도 개웃. 화장 딱딱한 현대인의 인간성을 대중평론은 어떻

다

YS와 0-157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왕 산 글

알림니다

· '97 불어과 수학생협

어디 : SAIPAN

누가 : 불어과 3학년

언제 :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할 : 2만원 (Air+Food+Trans)

여권이 없으신 학생은 단체로 신청해 드렸습니다.

(재용: 94에게 기사사랑 문의)

· 제12회 과 대학 대회

대회기간 : 10월 6일(월) - 10월 8일(수)

대회장소 : 자연대 요트

경기종목 : 남자단식, 여자단식, 남자복식

(테니스 동아리 ACE)

'비둘기 첩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비둘기 첩판

이문 별

알림니다

· 태국어과 세민재, 전.대.의 멤버들이 확정되었습니다.

· 말하기 대회 : '92 김문태, 김선욱, '95 박효정, '97 정소인

· 출판 : '97 이문정, 김소연, 한예숙, 정선영, 김한나, 김하연

말하기 대회 출전자, 출판, 노래,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태국어과 편·홍보)

· 10월 10일(금) 늦은 4시 비둘기

축구등 은강 스포츠·영교과 남자들 전향합식 요망

단, 비둘기 회비 3,000원

(영교과 학생회)

· 불어과 학우 여러분, 2학기 사물함 신청 및 반납을 바랍니다.

반납자 : 과회장에게 일시 반납

신청자 : 5원권을 가지고 과회장에게로 (015-948-7610)

· '97 천지개벽 제1회 정기공연

· 마당놀이 난장

· 대학원 건물 6104호

· 10월 7일 늦은 6시

· 영어교육과 영어연극회 '우리가지'에서 출품한 가을을

따뜻하게 감싸는 영어연극을 개최합니다.

· 예인과 함께 오세요!

· 작품 : 신의 아이들(전편 모두 날개가 있다.

(All God's Children Get Wings)

· 일시 : 10월 9일, 10일 6시 30분

· 장소 : 대학원 1층 소강당

(참고회의 선봉 13대 영어교육과)

· 중국어과 vs 이란어과 야구대회

· 일시 : 10월 7일(화) 늦은 3시

· 신청은 과방에서...

· 민주행정학과 '97년도 9대 학생회 회회장을 지준호(36) 학우

가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행정학과를 사랑하는 한 여학우)

